

# 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의 20년 평가 및 개선과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2019. 8. 18. - 24.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 1 출장 계획

### 1. 출장배경

#### □ 연구 배경

-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LDC)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운영
- LDC 특혜관세제도가 20년이 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동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제도운영을 평가한 후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무역을 통한 LDC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 □ 연구 추진현황

- 사전협의('19. 2. 28)를 통해 연구기획을 완료하였고, 착수보고회('19. 3. 22)를 개최하여 연구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동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강화를 위한 자문의견 수렴
- 이후 중간보고회('19. 7. 19)를 개최하여 연구중간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연구품질 제고를 위한 자문의견 수렴

< 연구주제 및 연구진 >

	목차	연구진
주제	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의 20년 평가 및 개선과제	PM 방호경(KDI) 김민정(서울대) 공동연구 성한경(서울시립대) 김승주(KDI) 관리/연구 전인재(KDI)
1.	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의 운영 현황 및 평가	
2.	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 개선에 따른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	
3.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4.	제도개선 및 개발협력사업 연계방안	

#### □ 출장 목적

- (캄보디아) LDC 특혜관세를 부여받고 있으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원산지 증명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캄보디아내 기업관계자 면담
- (대만) 관세청 등 관계기관면담을 통해 한국과 같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LDC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해온 경험과 향후 동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방안 등 조사

## 2. 출장개요

□ 기간 및 장소

- 기 간: 2019년 8월 18일(일) ~ 24일(토), 한국 출·입국일 포함
- 장 소: 캄보디아(18~21일), 대만(21~24일)

□ 주요활동

- (캄보디아) 섬유, 자동차부품 등 對한국 수출을 활발히 하는 기업면담을 통해 LDC 특혜관세제도 이용 시 애로요인 파악

< 캄보디아 면담기관 >

	기관명	비고
1	Cambo Handsome Ltd. (한솔섬유)	섬유가공기업
2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캄보디아 섬유협회
3	Simone ACC. Collection (Cambodia) Co., Ltd.	섬유가공기업
4	Kyungshin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5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 관세청
6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 ( ) 관세청, WTO&RTA센터 등 주요기관 면담을 통해 그간 LDC 특혜 관세제도의 운영경험과 향후 추진계획 등 조사

< 대만 면담기관 >

	기관명	비고
1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대만 관세청
2	Taiwan WTO and RTA Center,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국책연구소
3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민간 경제연구소
4	Taiw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	개발협력 실행기관
5	KOTRA 대만 무역관	

\* 대만 관세청은 출장 중 기관사정으로 인해 면담 대신 온라인 질의응답 진행

□ 출장자(총 4명)

	이름	소속	직위	역할
1	방호경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PM
2	김승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공동연구
3	전인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관리/연구
4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 3. 출장일정

일시	시 간	활동내용	장소
8.18(일)	18:40/ 22:10	인천 → 프놈펜	KE 689
8.19(월)	09:30-10:30	[기관면담] Cambo Handsome Ltd.(한솔섬유)	Cambo Handsome
	11:00-12:30	[기관면담]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캄보디아 섬유협회)	GMAC
	14:00-16:00	[기관면담]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 관세청
	16:00-17:00	연구점검 회의	
8.20(화)	09:00-11:00	[기관면담] Simone ACC. Collection (Cambodia) Co., Ltd.	Cambo Kotop
	14:30-15:30	[기관면담] Kyungshin	KOTRA
	15:30-16:30	[기관면담]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KOTRA
	17:00-18:00	연구점검 회의	
8.21(수)	12:35/ 17:10	프놈펜 → 타이페이	BR 266
8.22(목)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대체	[기관면담] Customs Administration(관세청)	대만 관세청
	15:00-16:00	[기관면담] Taiw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	Taiwan ICDF
	16:30-17:30	[기관면담] KOTRA 대만 무역관	KOTRA
	17:30-18:30	연구점검 회의	
8.23(금)	10:00-11:30	[기관면담]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IER
	14:00-16:00	[기관면담]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CIER
	16:30-17:30	연구점검 회의	
8.24(토)	13:20/ 16:55	타이페이 → 인천	KE 692

\* 세부일정은 현지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면담내용 요약

- 캄보디아의 기업환경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EU의 EBA 재검토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미국의 특혜관세부여(가방류, 지갑) 및 중국의 막대한 건설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기여
  - 비교할 때, 인프라 및 인적자본 수준은 많이 낮아도 최저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투자매력도 감소
  - 반면, 2016년 미국의 특혜관세부여가 결정되면서 가방제조관련 투자 및對미 수출량은 증가
- 산업경쟁력이 낮은 캄보디아의 경우, 주요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역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원산지 기준은 동 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여부를 결정
  - EU의 EBA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1999~2011년 동안 활용율이 5% 아래였으나, 원산지 기준 완화 이후 활용률이 제고되며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 일본도 2015년부터 의류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였고(1단계 transformation 인정), 이에對일본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
  - 현재 한국이 제공하는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 40% 이상)은 수입산 원재료에 의존하는 캄보디아의 경우 충족시키기 어려운 바, 원산지 기준 완화 필요
-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FTA 및 일반특혜관세제도가 확대되면서 관세청 FTA오피스, ROO오피스를 설립하는 등 자국 기업이 관련 협정/제도를 활용하여 수출확대를 이루도록 지원책 마련 중
  - 향후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전자시스템구축, 제도 개선, 역량강화(전문가 양성) 등을 제공한다면 캄보디아의 무역참여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
- 대만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적용품목이 약 31.7%로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에 비해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

- 대만 정부는 농업 등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002년 WTO가입 이후 이미 시장을 충분히 개방했다는 판단아래 특혜 관세 적용품목 제한
  - 최빈국 지원의 경우, 특혜관세부여보다 무역역량 강화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협력 전달실행기관(TaiwanICDF)을 통해 관세현대화, 생산역량 제고 등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권고와 대만 정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품목을 75%까지 확대하려고 계획
- TaiwanICDF는 수교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역량, 교육, 보건, ICT, 환경 등에 집중하여 개발협력 사업 추진
    - 수교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
    - 사업분야는 1) 대만의 비교우위, 2) 협력적 관계 강화, 3) 공공·민간의 자원, 4) 협력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
    - 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성과평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TaiwanICDF는 장기간에 걸쳐(10~15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등 실증에 기반 한 성과평가 시도

### 3 세부 면담내용

#### 1. [기관면담] Cambo Handsome Ltd.(한솔섬유)

- 일 시: 2019년 8월 19일(월), 09:30-10:30
- 장 소: Cambo Handsome 본사
- 참석자: 강문선 이사, 홍제석 과장(이상 Cambo Handsome),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캄보헨섬 소개) 캄보헨섬은 한솔섬유의 캄보디아 법인으로, 미국, 유럽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둔 B to B 섬유봉제기업.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약 1조 5천억원.
  - (캄보디아 섬유산업 현황)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섬유공장이 이전해왔는데, 최근 인건비가 베트남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캄보디아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짐. 캄보헨섬도 운영하던 공장 3개를 줄여 약 70%규모만 생산하고 있음. 또한, 유럽의 노동법을 차용하여 법제도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도 제약요인 중 하나.
  - (유럽의 특혜관세부여 현황) 최근 EU가 캄보디아의 인권/노동권 문제로 일반 특혜관세인 EBA(Everything But Arms)의 철회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의류산업은 캄보디아의 핵심산업으로 전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혜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선별적으로 특혜가 제한 될 수 있음.
  - (미국의 특혜관세부여 현황) 기본적으로 미국의 GSP는 캄보디아 섬유산업에 적용되지 않음. 캄보디아의 친중국 성향이 미국의 특혜관세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핸드백 등 가방류에 대해 미국의 특혜관세가 부여되었음. 이에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섬유산업에 이루어진 42건의 투자 중 가방류에 30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원산지 기준 관련) 캄보헨섬의 경우 거의 모든 원재료를 중국(60%), 베트남(30%) 등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주로 인건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따라서 특혜관세 적용 기준

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나 EU의 EBA 등은 세번변경기준을 함께 인정해주기 때문에 CO만으로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對한국 수출도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해주는 'HS 2단위 변경+재단&봉제 기준'을 활용하여 하고 있음.

- (캄보디아 섬유산업 전망) 중국의 고급 의류에 대한 수요 확대는 캄보디아 섬유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망이 밝지 않음.
  - 저해요인들은 1. 열악한 전기, 교통 등 인프라, 2. 노동자 편향적 제도(인건비 상승, 복수 노조 등) 3. 준조세(찾은 국세청 감사), 4. 열리지 않는 미국 시장(의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 [ ]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GMAC)

- 일 시: 2019년 8월 19일(월), 11:00-12:30
- 장 소: GMAC 회의실
- 참석자: 황순정 부회장, Ken Loo 사무총장, Ly Tek Heng 매니저(이상 GMAC),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GMAC ) 회원사는 550개, 회원사 근로자 수는 총 75만명으로 단일 산업으로는 캄보디아내 최대 협회. 회원사를 대표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섬유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수립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한편, 협회차원에서 중간관리자 교육, 재난 발생 시 구호물품 제공 등 CSR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원산지 기준과 수출 증대효과) 일본은 2015년부터 HS코드 61번(의류)에 대해 1단계 transformation기준을 허용하였고 이에 對일본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유럽의 GSP도 엄격한 원산지기준으로(Rules of Origin, ROO) 인해 1999~2011년 동안 활용율이 5% 아래였으나, ROO 완화 이후 미국을 넘어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음. 이외에 중국, 대만도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관련)** 현재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40%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2단계 transformation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캄보디아 섬유산업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동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움. 특히, 부가가치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2단계 transformation은 더욱 까다로운 조건임. 따라서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EU, 일본 등과 같이 ROO의 완화가 요구됨.
-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경쟁력)**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논할 때 방글라데시와 자주 비교되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제품세분화에 따라 시장이 구분되므로 직접적인 경쟁국은 아님. 캄보디아의 경쟁국은 베트남과 미얀마로 볼 수 있음. 베트남은 물류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강점인 반면,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 시 규제가 거의 없고, 최빈국 지위를 바탕으로 받고 있는 특혜관세 등을 강점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최근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

### 3. [기관면담] Customs & Excise of Cambodia

- 일 시: 2019년 8월 19일(월), 14:00-16:00
- 장 소: Customs & Excise of Cambodia 회의실
- 참석자: SOK LEAKSMY, MaK Visal 부국장(이상 캄보디아 관세청),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캄보디아 무역관련 거버넌스)** 캄보디아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산하의 관세청은 수입과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수출과 국내 기업의 원산지 입증 지원 등 대내업무 전반을 담당함.
  - **(캄보디아의 수출 애로 요인)** 엄격한 원산지 기준과 함께 위생검역기준(SPS) 등 비관세장벽도 캄보디아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 의류의 경우 캄보디아에서는 1단계 변경(Single transformation)만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으로 2단계 변경(Double transformation)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어려움.

바나나, 망고 등 캄보디아에서 완전생산된 품목들은 원산지 기준보다 SPS를 입증하는 것이 수출 시 가장 까다로운 요소임. 한편, 최근 수출이 증가한 전자산업, 자전거 등은 무관세혜택이 부여되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것.

- **(관세행정 현대화 관련)** 통관시스템의 경우 최근 아세안 6개국 간에 싱글윈도우가 구축되었고, 곧 한국과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 원산지 관리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지만 향후 설치된다면 기업들이 FTA 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관련)** 현재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가 인정해주는 부가가치 기준은 캄보디아 기업들이 충족하기 어려움. 세번변경기준을 함께 제시해주거나, 부가가치 인정기준을 낮춰주는 등 원산지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또한, 기업들이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도 필요할 것.
- **(원산지 기준관련 최근 이슈)** 최근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FTA 활용 시 원산지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캄보디아 공장들을 조사하였음. FTA체결이 확대되며 적절한 원산지 기준마련과 이를 입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2018년 관세청 내에 ROO오피스와 FTA오피스를 설립하였음.
- **(향후 협력방안)** 현재 ROO오피스는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ROO관련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도와준다면 캄보디아의 무역확대로 이어질 것.

### 4. [기관면담] Simone ACC Collection

- 일 시: 2019년 8월 20일(화), 09:00-11:00
- 장 소: Simone 회의실
- 참석자: 조성원 차장(Simone),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Simone 소개)** Michael Kors, Coach 등 글로벌 브랜드를 주요 고객사로 둔 가방

제조기업.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캄보디아 공장의 경우 미국의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되어 월평균 30만pcs를 생산하고 있음.

- ( 투자결정 ) 캄보디아 가방류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면서, 시몬느 등 여러 핸드백(가방) 제조기업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추진하였음. 캄보디아는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의 CSP 유지가 상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점이 강점인 반면 낮은 생산성은 제약요인임.
- (사업 운영 중 애로요인) 무엇보다 급격히 오르는 최저 임금이 가장 큰 어려움. 베트남과 비교해볼 때 베트남은 4개 지역에 차등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수준이 베트남 1지역에 거의 근접했음. 높은 임금에 비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사업운영의 애로요인. 베트남을 100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80, 캄보디아는 40정도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항구 쪽에 노동인력이 몰리다 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고, 추가적인 인력조달도 쉽지 않음.
- (원산지 입증 관련) 캄보디아에서 CO를 발급받을 때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 여러 담당자들이 각 단계별로 이윤을 취하기 때문에 건당 58달러를 지불해야하고, 발급시간도 8~10일로 오래 소요됨.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건당 발급비가 높은 수준이고 처리기간도 긴 편. 바이어들은 서류 접수 시 CO를 함께 요구하는데 CO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음.
- (원산지 기준 관련) 캄보디아의 경우 수입하는 원재료가 총 생산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가 요구하는 40% 부가가치 기준은 충족시키기 어려움. 또한, 한국산 원재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우대조건 효과도 미미함. 한국도 EU, 일본 등과 같이 세번변경기준도 함께 제시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원산지 관리자 교육의 필요성) 원산지 관리자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먼저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함. 캄보디아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에서도 그런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해외시장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하청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요함. 캄보디아는 유럽, 미국 등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산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CI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을 통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강화되었음.

- (개발협력 연계방안) 개발협력과 연계한다면, 1. 전자시스템 구축, 2. 제도개선, 3. 물류시스템 개선, 4. 인적역량 강화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먼저, 전자시스템 구축은 한국의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FTA-KOREA) 등이 캄보디아 내에 도입되면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겠지만, 해당 시스템을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관건.
  - 제도적인 측면은 범정부차원에서 해소해주면 분명히 진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 현재 캄보디아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기업의 정관변경 등 기본적인 사항도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있지 못함.
  - 다음으로 물류시스템 개선도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통시스템 등이 개선되면 제품운송에 도움이 될 것. 마지막으로, 인적역량 강화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낮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만, 각 산업, 기업별로 필요한 교육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 5. [기관면담] Kyungshin

- 일 시: 2019년 8월 20일(화), 14:30-15:30
- 장 소: KOTRA 프놈펜 무역관 회의실
- 참석자: 김성조 차장(경신), 방호경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Kyungshin 소개) 경신은 현대자동차의 주요 협력사로 차량 각 부위에 전력, 신호를 공급할 때 활용되는 배선, 퓨즈 등을 제조하고 있음.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고전압 시스템, 커넥터, 정션블록(Junction block) 등이 주요 산업분야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2012년 캄보디아에 공장을 설립함.
  -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 관련) 한국 수출 시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

는데, 한국산 중간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부가가치를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재료비 50, 노무비 35, 경비 15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 운영 중 애로요인)** 빠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대비 열악한 인프라는 가장 큰 애로요인임. 또한, 캄보디아의 많은 법정공휴일(총 28일, 2020년부터 7일 감축 예정)은 공장의 생산성을 낮춤. , 특혜관세와 관련해서는 CO 발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8~10일) 항공으로 수출 시 발급이 안 된 상태로 제품이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 한국은 사후처리도 인정해주긴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함.

- **(개발협력 연계방안)**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이 마련되면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캄보디아 당국이 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지가 의문.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외생산네트워크 향후 전망)** 캄보디아 공장의 생산성이 생각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생산공장의 추가 건설을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을 고려하였는데, 베트남이 캄보디아보다 임금상승이 빠르지 않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베트남으로 결정 함.

## 6. [기관면담] KOTRA 프놈펜 무역관

□ 일 시: 2019년 8월 20일(화), 15:30-16:30

□ 장 소: KOTRA 프놈펜 무역관 회의실

□ 참석자: 김동준 차장(KOTRA), 방호경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봉제기업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금융기업이 PF방식으로 건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금

융위기를 겪으며 여러 사업들이 중단됨. 최근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민간은행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기 위해 진출 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들의 애로요인)** 가장 주된 문제는 제도적 측면과 인적자본임. 크메르루즈 정권(1975~79년)이 베트남 등 외세에 의해 붕괴되고 UN이 의원내각제로 정치체도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포퓰리즘이 만연해짐. 이에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도 제도 전반에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음. 특히, 노동자 편향된 제도가 만들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복수노조의 허용 등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임. 한편, 주변국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아 인적역량 수준이 높지 않은 것도 주요한 애로요인.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음.
- **(중국의 영향력)**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중국의 식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큼. 캄보디아의 GDP 성장은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건설투자의 70% 이상이 중국 자본. 중국은 일대일로의 거점기지 중 하나로 캄보디아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선거에서 훈센총리가 제1야당을 와해시키면서 서방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고, 캄보디아의 親중국 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일반특혜관세의 중요성)** 캄보디아는 산업경쟁력, 인적자본 경쟁력, 임금수준 등이 주변국보다 열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특혜관세가 큰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2016년 미국이 캄보디아산 핸드백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섬유산업관련 투자는 대부분 핸드백 제조기업을 통해 이루어졌음. 한국의 Simone도 2017년 생산시설을 마련함. 최근 EU가 EBA를 통한 무관세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캄보디아 정부 및 섬유협회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음.
- **(향후 전망)** 최근 베트남 이후 투자처로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미얀마, 라오스도 상황이 열악하겠지만 캄보디아도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 중국의 대규모 건설투자도 외형은 바뀌었지만, 인적자본이나 제도 등 소프트웨어 측면은 여전히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 캄보디아가 베트남처럼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 7. [ ] Taiw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Fund

□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5:00-16:00

□ 장 소: TaiwanICDF 회의실

□ 참석자: Yun-Ching Tseng, Regine Liu, Yilia Chen(이상 TaiwanICDF),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TaiwanICDF 소개)** TaiwanICDF는 대만정부에 의해 1996년 독립적인 개발협력 실행기관으로 설립되었음. 이후 대만 총 개발협력 예산의 약 10% 정도(2018년 기준 4000만 달러)를 활용하여 대출 및 투자 20%, 교육 및 직업훈련 47%, 기술 20%, 인도적지원 13% 등을 하고 있음(그외 90% 개발협력 예산은 외교부에서 직접 운용).
- **(지원대상국 선정)** 대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17개 수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018년 기준으로 중남미 12개국, 동아시아·태평양 12개국, 서아시아·중동·아프리카 9개국, 중앙아시아·동유럽 6개국에 사업이 추진됨.
- **(지원사업 선정)** 1) 대만의 비교우위, 2)협력적 관계 강화, 3) 공공·민간의 협력 자원, 4) 협력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함. 또한, SDGs와 연계하여 기아 종식-농업(2번), 보건(3번), 교육(4번), 경제성장(8번), 파트너십(17번) 목표를 중점적으로 지원. 2019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농업 56개, 공공보건 8개, 교육 5개, ICT 5개, 환경 5개, 기타 범분야 14개로 총 93개 사업임.
- **(사업평가관련)** TaiwanICDF의 기술협력사업은 대개 Phase를 나누어 10~15년 간 사업이 추진됨.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성과를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등 실증에 기반하여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구성의 어려움, 데이터 부족, 기타 요인의 통제 어려움 등으로 기술협력사업의 성과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음.
- **(무역역량 관련 사업)** TaiwanICDF가 수행한 무역역량관련 사업은 생산역량 강화, 관세현대화, 수출품목 다양화 사업 등이 있음. 과테말라 대나무 산업프로젝

트, 니카라과 수공예품 생산효율성 강화 프로젝트 등은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후 소득증가와 함께 수출확대도 도모할 수 있었음.

## 8. [기관면담] KOTRA 타이페이 무역관

□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6:30-17:30

□ 장 소: KOTRA 타이페이 무역관 회의실

□ 참석자: 박철 관장(KOTRA),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경제현황)**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대만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핸드폰 제조로 대표되는 전자산업이고,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46%), 미국(10%), 싱가포르(6%), 일본(5.3%)임. 대만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협력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추진하여 아세안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특히, 현재 중미 국가 등 8개국과만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 **(산업지원정책)** 대만의 산업지원 정책 트렌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변해왔는데, 운영자금 지원→연구개발(R&D) 지원→수출확대 지원→창업지원 순임. 최근 창업지원과 더불어 IOT, Robotics 등 기술기반 산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수출확대는 대만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으로 대만도 한국의 KOTRA같은 TITRA를 운영하며 전세계 64개의 오피스가 있음. 대만이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전자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개도국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FDI의 경우, inbound은 Invest Taiwan을 운영하며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최근의 중점사항은 대만 자국 기업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리쇼어링 정책. 반면 outbound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제조업과 금융업이 대표적임.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 일본기업과 협력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협력정책)** 대만은 연간 약 3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세아니아 및 중앙아메리카 등 국교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 대만과의 국교가 모두 단절된 상태고 따라서 개발협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개발협력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 한편, 3억달러 규모는 경제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사회인프라, 생산역량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9. [기관면담]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일 시: 2019년 8월 23일(금), 10:00-11:30
- 장 소: TIER 회의실
- 참석자:
  - Chi-Jen Yeh 국장(TIER),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수출구조)** 대만의 수출구조는 한국 전자산업과 유사한데, 일본 등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서 중간재를 제조한 후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임. Flying geese 모델에서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대만 수출의 약점은 FTA 체결국이 8개국 밖에 되지 않아 WTO 체제를 바탕으로 MFN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강점이라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이 주 수출산업이라는 것과 대기업과 SMEs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수출로 인한 이윤이 비교적 고루 분배된다는 것. 공급사슬과 관련해서 대만은 중국과 공급사슬이 강하게 묶여있음. 대만은 중국과 강한 무역관계가 형성되어있는데, 대만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중국이고 중국의 10대 수출기업 중 5개가 대만기업임.
  - **(산업발전 전략)** 대만의 여러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데이터코노미를 뒷받침하는 첨단기술기반 산업이 가장 중요한 미래먹거리. 정부도 이를 육성하기 위해 IOT, Robotics 등 4차 산업혁명이 포괄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국제사회의 합의 이행과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빈국 특혜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원산지 규정은 중국 및 최빈국간 누적이 인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 등은 국내 산업보호가 강조되기 때문에 특혜관세 제품품목 수가 전체 품목 중 30% 정도밖에 되지 않음.

## 10. [기관면담]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일 시: 2019년 8월 23일(금), 14:00-16:00
- 장 소: CIER 회의실
- 참석자: Chaw-Hsia Tu 연구위원, Yi-Wen Su 애널리스트(이상 CIER), 방호경 외 출장단 전원
- 주요내용
  -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현황)** 대만의 최빈국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품목 중 31.7%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여타 국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WTO는 지속적으로 DFQF(duty free/quota free)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만은 이미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폭 관세인하를 실시하였고(현재 평균 5~6%), 이미 MFN관세가 무관세인 품목도 많음. 따라서 정부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적용품목 확대 논의)**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해 97% 이상 품목에 대해 DFQF 대우를 합의한 이후, 정부의 요청으로 CIER에서 차례 동 제도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 시에 CGE모델 등 여러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봤음.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나 국제적 합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CIER은 적용품목을 80%까지 확대하라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10년 이상 정책변화가 없음. 대만 정부의 우선순위는 국가 산업의 보호이기 때문에 최빈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품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결정이 쉽지 않음.
  - **(원산지 규정 관련)** 여러 국가에서 최빈국 특혜관세 제도의 원산지 규정도 민감

한 이슈이나 대만은 적용 품목의 비중 확대가 주요 이슈이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 기본적으로 최빈국은 특혜관세를 부여받아도 생산역량이 부족해 수출 자체가 어렵고, 수출을 할 수 있어도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역 기준(SPS)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대만이 제공하는 특혜관세의 활용률이 낮은 것도 SPS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성화 방안)**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對최빈국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최빈국의 기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그간 동남아시아 등의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이 FDI를 통해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동 기업이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음.
- **(최빈국과의 기술협력)**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만정부는 기술협력사업을 운영하여 최빈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ICDF를 통해 관세현대화, 수출품목 다양화 등 무역역량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실시하였고, 그 중 몇 가지 사업은 WTO를 통해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음. 다만, 대만의 개발협력사업은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에 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최빈국 중에서 지원을 받은 국가가 많지 않음.

데, 그 중 2,816(30.82%)개 품목에 대해 최빈국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

- Q2. 대상품목 비중이 한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데,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A2. 대만내에서도 대상품목 수에 확대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최근 외교부가 대상 품목 비중을 30.82%에서 75%까지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Q3. 대만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지?
  - A3. 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 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물품이 생산될 때 해당 최빈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계산 시 대만산 원재료, 중국산 원재료, 최빈국의 원재료를 포함할 경우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시킨다. 원산지 증빙은 대만 재무부가 정한 형식을 활용하여 수출국 정부가 발급/인증한 경우에 가능.

$$RAV = [(TV-VNM)/TV] \times 100$$

- RAV : the ratio of added value
- TV : the export price of the good, adjusted to a FOB basis
- VNM : the price of imported raw materials and parts used in a manufacturing or processing process of the good, adjusted to a CIF basis.

## 11. [온라인 질의\*] 대만 관세청

\* 출장 중 대만 관세청의 기관사정으로 면담 취소,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대체 진행

□ 응답자: Hsu Shihming 사무관(Tariffs and legal affairs,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 주요내용

- Q1. 대만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현황은?
  - A1. 최빈국 특혜관세관련 1994년 처음으로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10년 까지 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2019년 기준으로 총 9,136개 관세부과 대상품목이 있는



1. Cambo Handsome (8.19)



2. GMAC (8.19)



3. 캄보디아 관세청 (8.19)



4. Simone (8.20)



5. Kyungshin, 6. KOTRA 무역관 (8.20)



7. TaiwanCDF (8.22)



8. KOTRA 타이페이 무역관 (8.22)



9. TIER (8.23)



10. CIER (8.23)